

파니움 - 숫자 십칠

그 일과 그 환상: 다니엘의 두 가지 예언의 선과 요한계시록의 봉함 해제

Jeff Pippenger

2026-02-22

2020년 7월 18일, 십사만 사천인 운동의 첫 번째 실망이 임하였다. 그 일은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 그 실망은 그 "숨겨진 역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국면에서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되었다. 41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표상하며, 이는 같은 장 16절에서도 또한 표상된다. 2023년에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구성하는 진리들의 "인봉 해제"가 다니엘서 12장에서 제시된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동일한 이상이며, 그 이상은 다니엘이 예언의 내적 및 외적 메시지 둘 다를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을 대표함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거기에서 그것은 "그 일"과 "그 이상"으로 표상된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가 오래이므로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더라.
다니엘 10:1.

두 환상

'thing'과 'vision'은 예언의 내적 환상과 외적 환상을 표상하며, 다니엘은 양자를 이해하는 한 백성을 표상한다. 이는 제10장에서 'thing'과 'vision'이 모두 다니엘에게 'revealed'되었기 때문이다. 그 장에서 제22일에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revealed'되었다. 'thing'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9장에서는 'matter'로 번역되며, 거기에서도 'vision'과 관련하여 제시된다.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려왔고, 내가 네게 알려 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달아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다니엘 9:23.

10장의 "thing"이라는 단어는 9장 23절에서 "matter"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하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인 10장부터 12장까지의 부분에서, 11장의 "thing" 또는 10장의 "matter"는 모두 "the vision"과 연결되어 있다. 이 "the vision"은 히브리어 "mareh"로, "나타남"을 뜻한다. 다니엘은 자신의 책에서 두 개의 "vision"을 식별하는데, 그 둘 가운데 하나는 먼저 여성형으로, 다시 남성형으로 나타난다. 다니엘은 10장 1절에서 그 "나타남"의 "vision"과 또한 "matter" 또는 "thing"을 이해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8장에서 다니엘은 서로 연결된 두 "vision"을 식별한다. 영어에서는 그 장에서 "vision"이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오며, "vision"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는 "mareh"이고 다른 하나는 "chazon"이다. "mareh"는 "나타남"을, "chazon"은 "꿈, 계시 또는 신탁"을 의미한다. 8장의 문맥은 "mareh"가 "vision"으로 번역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증한다.

그 한 예로, 다니엘 8장 14절의 '마레'(mareh), 곧 '출현의 환상'이 있다. 이것은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를 성취하시며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실 것임을 의미하는데, 화잇 자매는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고 말했다. 화잇 자매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려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둔 그 천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정할 때,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예언의 이정표를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분의 수많은 출현들 가운데 하나이다. 유다서에 따르면, 모세의 부활 때에도 그분은 나타나셨다. 그때 그분은 대천사 미가엘로서 나타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언적 출현이었다. 8장에 나오는 마레 환상은 그 의미에 부합하여 'appearance'로도 번역된다.

이에 내가,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구하고자 할 때에, 보라, 사람의 모양 같은 자가 내 앞에 서 있더라. 다니엘 8:15

여기서의 문맥은 '사람의 모양(appearance)'을 한 이가 천사 가브리엘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appearance'라는 말은 'mareh' 환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리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미가엘 대천사로도, 또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로도 표상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예언적 상징에서 천사들, 심지어 사람들과도 서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가브리엘이든, 계시록 10장의 그리스도이든, 혹은 대천사 미가엘이든, 그들은 각기 하나의 기별을 대표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 자매는 계시록의 천사들을 그들이 대표하는 기별과 그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 둘 다와 비교한다. 이 진리는 너무도 중요하여, 계시록 1장의 첫 세 절, 곧 '때가 가까움이라'는 선언과 더불어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림을 알리는 그 세 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의 소통 과정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별을 주시고, 아들에게서 그 기별을 천사에게 주시며, 천사가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들에게 보낸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전달 과정의 모든 단계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그 성별된 거룩성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혹은 천사나 사람 또는 기별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예언적 이정표들에서 표상된다. 그분이 한 이정표에 자신을 직접 결부시키실 때, 그것이 곧 'mareh' 'appearance'의 환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 그의 종들에게 마땅히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 하신 것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여 알게 하셨으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1:1-3; 22:10, 11.

제8장에서는 '환상'으로 번역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chazon'이다. '모습'과 관련하여 'marah' 환상은 하나의 이정표를 나타내고, 'chazon' 환상은 하나의 예언적 기간을 나타낸다. 제8장에서 '환상'으로 번역된 두 단어 사이에는 신적 대칭성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mareh'가 그 여성형인 'marah'의 형태로도 다니엘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chazon'에 관하여 다니엘은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남성형과 여성형의 대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리키는 두 단어를

통해서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

Chazon은 '환상', '신탁', 혹은 '예언'을 뜻한다. 그리고 영어에서 'matter' 또는 'thing'으로 번역되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dabar'이다. 'chazon' 환상이 다니엘에 의해 'dabar'라는 말로도 표상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메시지를 가리킨다. 다니엘은 언제나 'dabar' 혹은 'chazon'을 'mareh'와 대조한다. 예언적 차원에서 볼 때, 'dabar'와 'chazon'으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는 'marah' 환상과 결합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역사의 거룩한 이정표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환상'이라는 말의 의미 계열에 'mareh'의 여성형인 'marah'를 더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창조의 거울 같은 환상을 얻게 된다.

그의 책의 마지막 세 장에 제시된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이상'을 깨닫고, 십사만 사천의 개혁운동을 이루는 거룩한 이정표들의 신성함을 아는 말세의 한 백성을 대표한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 안에서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양을 따를 때, 그분은 그들을 다니엘 10장 7절의 '거울 같은 이상'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도망하여 오류 속에 숨어 영원히 매장되거나, 혹은 티끌 가운데서 검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권능을 받아 후일의 예언의 기별을 전하게 된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일'과 '환상' 둘 다를 '이해하라'고 명한다. '이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신적으로 구별하다'를 의미한다. 친애하는 독자인 그대와 나를 대표하는 다니엘은 '일'과 '환상' 사이의 차이와 구별을 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chazon 환상은 예언적 역사의 외적 선을, mareh 환상은 그리스도의 현현을 가리킨다. '일'과 '것'은 히브리어 'dabar'로, '말씀'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dabar'이시니, 그분은 곧 말씀이다. '것'과 '일', 둘 다 'dabar'로서, 현현의 환상과 연결되어 제시된다.

사건이자 사물인 dabar는 또한 8장의 chazon 환상이며 예언적 역사의 환상을 대표한다. 이러한 표상들(chazon, dabar, 사건, 사물)은 예언의 외적 선을 가리키며, mareh와 그 여성형 표현인 marah는 예언의 내적 선을 대표한다. 다니엘 10장 1절에 표상된 하나님의 말세의 백성은 예언적 역사의 내적 선과 외적 선을 모두 이해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적 선은 일곱 교회로, 외적 선은 일곱 인으로 표상된다.

다니엘이 스물한 날 동안 금식한 뒤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마레 환상의 여성형 표현을 보았다. 마레는 '모습'을 의미하며,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마라' 환상을 보았다. 마레가 '모습'이라는 뜻이지만, 같은 단어의 여성형은 '거울'을 의미한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요한이 본 환상이었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계실 때 그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가브리엘이 방문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은 더 이상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께 빛과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또 전혀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노라....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베옷을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허리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보석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이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빛깔이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묘사는 그리스도께서 밤모 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전한 묘사와 유사하다. 우리 주께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계시하신 위대한 진리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은 연로한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는 이방 궁정의 매혹 한가운데에서 보내졌고, 그의 마음은 거대한 제국의 정무에 얽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였다.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 궁정으로부터의 빛이 말세에 살 자들을 위하여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아야 하겠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1년 2월 8일.

십사만 사천

다니엘은 그 "일"과 "환상"을 깨닫고, 그는 다니엘로도 또한 벨드사살로도 불린다. 예언에서 이름의 변경은 언약적 관계를 표상하므로, 다니엘은 성전에서의 그리스도의 환상으로 시험을 받는 마지막 언약 백성, 곧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그 시험은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분리시킨다.

오직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나니, 이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느니라. 다니엘 10:7.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세 백성과 관련된 둘째 시험과 성전 시험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험이다. 7절의 환상은 marah 환상의 여성형으로서 marah 환상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다니엘의 응답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전 환상에 응답한다면, 예언적 '사안'과 예언적 '환상'이 당신에게 '계시'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바로 그 동일한 성전 환상에 대하여 숨기 위해 도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가운데 둘째 시험인 성전의 시험에는, 첫째이자 기초가 되는 시험이 선행한다. 그 기초에 관한 시험의 물음은 다니엘 11장 14절에 제시되어 있으며, 거기서 로마는 "환상"을 세우는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 묘사된다.

때가 임박하였다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부터 사흘 반이 지난 뒤, 2023년 12월 31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이 풀리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때가 가까웠음이라" 때문이었다.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22:10.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인봉이 풀리는 것을 가리키는 '때'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언급되며, 말미에서는 동일한 선언이 오메가의 진술로서 알파의 진술에 더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해제된다. 이십일간의 금식 후 이십이 일째 되는 날에, "사건", 곧 "사안", 곧 *dabar* 또는 "말씀", 곧 외적 예언 역사에 관한 *chazon* 환상이, 그가 지성소에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에 관한 거울, 곧 *marah* 환상을 체험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다.

다니엘은 '거울을 통한 환상'의 경험을 가지며,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적 현현과 *chazon* 환상이 표상하는 외적 역사를 이해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marah* 환상은 그리스도를 예언적 이정표로서 표상하며, 동일한 단어의 여성형은 다니엘, 요한, 이사야, 화잇 자매 및 다른 선지자들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써 생겨나는 경험을 표상한다.

이 단계에서 *chazon* 외적 환상은 기초 시험을 표상하며, 예언적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 주는 *marah* 환상은 성전 시험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가장 거룩한 처소, 곧 지성소 안에 나타나셨는가? 바로 거기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다. 이것이 곧, 리트머스 시험에서 유예가 종결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품성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은 *marah* 거울 환상이다.

2023년 12월 31일, 14절의 '네 백성의 약탈자들'에 관한 기초의 외부 시험이 시작되었고, 2025년 5월 8일에 현 교황이 즉위하였을 때 14절의 '이상'이 확립되었다. 기초의 시험은 성전의 시험으로 전환되었다. 2025년 5월 9일부터 성전의 시험이 진행 중이다. 2023년 12월 31일에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표상되었으며, 그 날짜에 시작된 부활은 2014년에 시작되어 2022년에 격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간 안에서 일어났다. 그 역사 속에서 예언의 외적 선과 내적 선이 수렴하였다. 2023년 12월 31일에는 기초를 놓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은 1798년부터 1840년까지의 역사, 또한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 또한 1844년 4월 19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역사에 의해 예표되었다.

다니엘 11장 11절은 예언의 외적 선으로서 역사 속에 나타나,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적 선이라 하는 바로 그 역사와 연결되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기원전 217년의 라피아 전투로 예표되었다. 2015년에 다니엘 11장 2절의 네 번째이자 훨씬 더 부유한 왕이 일어나 대통령직 출마 의사를 선언하였다. 그 선언은 그레시아의 영역으로 표상되는 용의 마음을 지닌 세계화주의자들을 격분시켰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2023년 12월 31일을 두 증인이 부활한 시점으로 지목하였다. 이에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예언적 '광야'로 이해되었다. '광야 기간'의 끝 무렵에, 2023년 7월에 한 음성이 외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내슈빌에 대한 실패한 예언(2020년 7월 18일)으로부터 정확히 천이백육십 일 후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분의 예언의 말씀의 인봉을 떼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인봉에서

풀릴 때마다, 다니엘서 12장에 제시된 바와 같은 삼단계 시험 과정이 항상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 희어질 것이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하게 행할 것이다. 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10.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고, 이어서 흰 의복을 받는다. 그 흰 의복들은 신부가 준비되었음을 상징하며, 그것은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난다. 신부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희게 되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함을 받는다.

2023년 12월 31일, 정결하고자 하는 자들을 정화하기 위하여 기초들을 시험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 정화는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그때 친히 자신에 관한 최종 계시의 봉인을 떼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 계시는 닦아 둘 수 있는 유일한 터가 곧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포함한다. 로마가 "네 백성의 악탈자들"임을 식별하는 근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닦아 둘 수 있는 유일한 터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에 즉시 두 부류의 분리를 초래한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14절의 역사적 성취가 2025년 5월 8일이었음을 봉인을 떼어 밝히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밀러가 로마를 예언의 외적 환상을 설정하는 상징으로 규정한 것을 확증하셨다. 트럼프가 2024년에 복귀하였을 때, 그는 다니엘 11장 13절을 성취하였고,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우리는 교황 레오의 선출과 함께 2025년을 지목한다. 트럼프도 그의 적그리스도적 대응자도 2025년에 취임하였다.

이 운동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시점들은 본질적으로 성별된 사후적 통찰이다. 우리는 끝의 때를 1989년으로 규정하고, 이어 메시지의 정식화는 1996년이였다. 9/11 당시 정식화된 메시지는 권능을 입었다. 2012년에 하박국의 판들을 제시하여 2013년 1월에 마무리된 그 과정 속에서 토대가 놓였다.

2020년 7월 18일에는 첫 번째 실망이 임하였고, 이어 2023년 7월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인봉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첫 번째 외적 기초 시험이 시작되었다.

2025년 5월 8일, 제2차 내적 성전 시험이 시작되었다. 제3차 리트머스 시험이 바로 앞에 있다. 그 자리에서 영혼이 제1차 외적 시험이 표상하는 메시지의 기름과 제2차 내적 시험에 수반되는 기름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 시험은 외적, 이어서 내적, 이어서 체험을 표상한다.

내적 예언선은 내가 방금 언급한 이전의 이정표들로 구성된다. 그 각각의 이정표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동일한 이정표들과 일치한다. 끝의 때로서의 1798년은, 또한 끝의 때인 1989년과 상응한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분의 말씀의 봉함을 푸셨으니, 그분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재림주의가 여로보암의 기초적 반역 때에 벤엘의 거짓 선지자에게로 되돌아가 함께 먹음으로써 불순종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들은 윌리엄 밀러가 일곱 때를 규정한 것에 대항하여 사용되었던 타락한 개신교의 논증들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1863년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알파 운동의 마지막 이정표인 이유를, 설령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결코 온전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126년이라는 사실—1,260의 상징이요, 1863년부터 1989년의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광야"의 상징—이 아무 의미도 없다. 사십 년이 끝날 때 여호수아는 그 운동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1989년에 주께서는 1863년부터 1989년까지의 "광야"에서 자신의 오메가 운동을 이끌어 내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광야"에서 알파 운동을 이끌어 내셨던 방식과 같았다.

1989년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세 장을 상징하는 히데겔 강의 이상이 봉함이 풀렸는데, 이는 1798년에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상징하는 울래 강의 이상이 봉함이 풀린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킹 제임스역 성경이 간행된 지 220년 후에 윌리엄 밀러는 울래 강의 이상에 근거한 자신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발표하여 1831년에 그 메시지를 정식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영화로운 땅인 미국이 탄생한 1776년으로부터 220년 후인 1996년에 히데겔의 메시지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킹 제임스 역본이 나온 지 이백이십 년 후에 이루어진 밀러의 기별 정식화는,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예언들을 사용한 최초의 거룩한 사자가 바로 윌리엄 밀러임을 규정한다. 성경은 신적이며, 220년 후에 인간과 결합하여 올라이의 기별을 산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의 간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1611에도, 또한 1831에도 두는 것이다. 끝의 때에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시며, 메시지가 공식화될 때에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으로 계신다. 밀러의 시작과의 관계는, 시작과 끝이 모두 그 메시지의 출판을 강조하고 있음을 통해 인식된다. 비록 서로 다르지만, 1776에서 1996에 이르는 기간도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히데겔의 기별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 관한 기별이다. 1776년과 독립선언서의 공표는, 제목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섭리적으로 붙여진 "Time of the End"라는 간행물의 발간으로 끝난 220년 기간의 기점을 이룬다. 같은 해, 곧 1996년에, "Future for America"라는 명칭의 사역 법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화로운 땅, 곧 미국에 관한 기별은, 그 예언의 시작과 끝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정식화되었다. 밀러주의 역사의 모든 주요 이정표는 열 처녀의 비유라는 지침적 패턴 아래에서 반복되었다. 두 개의 220년 기간 모두는 간행물의 발간으로 표시된 시작과 끝을 가진다.

밀러의 기별과 방법론은 둘째 화에 관한 예언이 이슬람을 통해 성취됨으로써 입증되고 능력을 부여받았다. 주께서 그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은 밀러의 '하루는 일 년' 원칙이었고, 또한 9/11에, 곧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이 계시록 10장에 표상된 대로 1840년 8월 11일에 이루어진 그 강림을 반복하였을 때, 그 기별과 방법론에 능력을 부여한 원칙이었다. 그 두 천사는 천사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예언적 현현을 표상한다. 1840년 8월 11일의 운동에서 '하루는 일 년' 원칙이 차지했던 기초적 위상과 동일하게, 9/11의 운동에서 기초가 되는 원칙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가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오메가와 셋째 천사의 역사 속에 도래한 이슬람의 셋째 화 예언의 성취가, 알파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 속에 도래한 이슬람의 첫째와 둘째 화 예언의 성취와 부합할 때, 밀러주의 역사가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원칙은,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와 둘째 화와 관련된 밀러의 '일일일년' 원칙만큼이나 확고하게 입증되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제시된 391년 15일의 기간 예언을 알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내가 앞서 말한 요점을 놓칠 수도 있다. 설명하겠다.

첫째와 둘째 화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와 상응하며, 셋째 화의 역사는 셋째 천사의 역사와 상응한다. 요점은, 둘째 화의 역사에 제시된 391년 15일의 기간의 기점이 첫째 화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다는 데 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 화의 역사에는 150년의 예언이 있으며, 그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391년 15일의 예언이 시작된다. 이 두 예언은 첫째 화와 둘째 화를 직접 연결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 하루를 일 년으로 치는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되었을 때, 그 예언은 이슬람의 첫째 화와 둘째 화에 관한 예언이었고, 이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 속에서 밀러의 방법론과 기별을 확증한 기별이었다.

그 역사가 1844년 10월 22일에 종결되었을 때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이자 경건의 비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그 나팔은 외적 경고의 기별이자 내적 경고의 기별이다. 그러므로 2,520년의 예언은 희년을 포함하는 토지 안식년과 연관된다. 1844년 10월 22일에 일곱째 나팔은 2,520년과 2,300년의 예언의 성취로서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에, 그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7.

1844년 10월 22일은 대속죄일이었고, 희년의 나팔은 대속죄일에 불려야 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셋째 천사의 역사 속에, 또한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기 위하여 내려왔고, 마찬가지로 9/11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도 그렇게 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 1월에 이르는 기간에 '하박국의 판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1842년 5월에 간행된 1843년 개척자 도표의 출판과 조용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때 그 운동의 토대가 놓였는데, 그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알파 운동이든, 혹은 셋째 천사의 운동이든, 하박국의 두 판은 그 역사와 기별 속에 직조되었다. 2020년 7월 18일의 실패한 예언은 1844년 4월 19일과 병행을 이루었고, 비유 가운데의 지체하는 때가 전개되고 있었다.

1,260일의 광야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진 봉인 해제와 함께 종결되었다. 화이트 자매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을 그 신성모독적 더럽힘으로부터 두 차례 정결케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분은 사역의 처음과 끝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두 번의 정결이 알파의 정결과 오메가의 정결이 되게 하셨다.

화이트 자매는 첫째 성전 정결을 9/11 및 첫째 음성과 분명히 연관시키며, 그 첫째 음성은 그녀가 요한계시록 18장 1-3절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어 4절의 '다른 음성'을 둘째 성전 정결로, 또한 일요일 법령으로 동일시한다. 밀러주의자들에게 1844년 4월

19일은 첫째 성전 정결이었고, 1844년 10월 22일은 둘째 성전 정결이었다.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46년 동안 밀러주의 성전이 건립되었으며, 성전 정결을 대표하는 두 차례의 실패의 역사에서 밀러주의 성전 건립의 프랙탈이 발견된다. 그 역사는 성전에 관한 것이다.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체하는 때에 처녀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라는 자신들의 책무를 자각한다. 그때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빛의 인봉을 떼어 오셨고, 인봉이 떼어진 예언의 빛은 항상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수반하며, 그 과정은 품성이 드러나되 결코 형성되지 않는 리트머스 시험에서 귀결된다. 리트머스 시험에서 신실한 처녀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상 기록된 하나님의 권능의 모든 현현을 능가하는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을 것이다. 전례 없는 빛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나는 밀러운동의 역사와 십사만 사천의 역사가 평행함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너는 다니엘아, 이 말씀을 감추어 두고 이 책을 끝날 때까지 봉함하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증대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끝날 때까지 감추어지고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이가 정결하게 되며 희어지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하게 행하리니 악한 자들 중에는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요,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4, 9, 10.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특이점

일론 머스크는 2026년 2월 21일에 “우리는 지금 ‘특이점’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술적 특이점

기술적 특이점(흔히 ‘특이점’이라 불린다)은, 주로 인공지능이 견인하는 기술 발전이 지나치게 빠르고 강력해져 인간의 통제와 이해를 넘어 가속화되면서, 인류 문명에 예측 불가능하고 심대한 변혁을 초래하게 되는, 가정된 미래의 한 시점을 가리킨다. 핵심 개념은 ‘지능 폭발’이다. 가장 뛰어난 인간보다 더 지능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일명 인공지능, ASI)을 우리가 한 번 창조하기만 하면, 그 시스템은 어떤 인간 집단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로써 능력이 극히 짧은 시간 간격(일 -> 시간 -> 분) 안에 거듭 배가되는 자기개선의 재귀적 순환이 형성되고, 이후의 전개는 폭발적이 되어 ‘특이점 이전의 인간들’이 이를 의미 있게 예측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이점’이라는 용어는 물리학과 수학에서 차용된 것으로, ‘블랙홀’에서의 특이점은 중력이 무한대에 이르고 우리의 현행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거나 예측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특이점은 역사 속에서 “사건지평선”으로 간주된다. 즉, 우리는 그 지점까지의 추세는 예측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증강되지 않은 인간의 정신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약사 및 주요 사상가

1950년대—기술 변화의 가속화를 논한 수학자 존 폰 노이만과, 1965년에 기계가 더 나은 기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서술한 수학자이자 암호학자인 I. J. 굿의 연구에서 초기적 단초가 드러난다.

1993년: 컴퓨터 과학자이자 SF 소설가 버너 빈지는 에세이 '다가오는 기술적 특이점'에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대중화하였다. 그는 2005년과 203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초인적 지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그 이후로 '인간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즉, 보조를 받지 않는 인간이 더 이상 지배적 지능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에서).

2005년—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이 개념을 주류 담론의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는 특이점이 2045년경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연산 성능의 기하급수적 성장(그의 '가속화되는 수익의 법칙'에 따름), 나노기술, 생명공학, 그리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견인된다고 본다. 그는 이 예측 시점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으며, 최근에는 AGI 2029와 특이점 ~2045를 재확인하였다.

연표 예측(2026년 초 기준)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시스템, 그리고 스케일링 법칙의 극도로 빠른 발전으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 예측의 시한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다: 가장 공격적/단기적 관점(2026-2027): 일부 저명한 인공지능 지도자들(예: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일론 머스크)은 초지능, 혹은 특이점을 촉발하는 계기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무언가가 이르면 2026년 또는 1-3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완전한 초지능/특이점의 달성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 설문조사의 중앙값은 여전히 2040~2050년 무렵에 집중되어 있다.

가능한 결과의 두 진영

유토피아적/낙관주의적 -> 급진적 풍요, 질병과 빈곤의 근절, 의식 업로딩 또는 나노의학을 통한 사실상의 불멸,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융합(트랜스휴머니즘), 이전에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과학적 문제들의 수분 내 해결.

디스토피아적/비관적 -> 인간의 행위주체성/통제력 상실, 정렬 실패(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와 직교하거나 그에 적대적인 목표를 추구함), 경제적 및 사회적 붕괴, 나아가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험까지.

특이점은 단지 '매우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적 진화가 생물학적, 곧 인간적 속도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폭주하는 과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가리킨다. 그것이 2026년, 2030년, 2045년에 일어나든, 혹은 결코 일어나지 않든, 이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함의를 지닌 미해결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종말의 때 - 1989

네트워크화된 세계의 시작

고립형 컴퓨팅에서 연결형 컴퓨팅으로의 전환. 팀 버너스-리는 1989년 CERN에서 월드 와이드 웹을 제안한다. 상업적 신경망 연구가 확대된다(군사 및 학술적 용도). 인텔 80486이 출시되며 개인용 컴퓨팅 성능이 도약한다. ARPANET은 현대적 인터넷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그 이전까지 컴퓨팅은 강력했으나 대체로 사일로화되어 있었다. 1989년 이후 컴퓨팅은 네트워크 지향적으로 전환된다. 1989년의 신경망은 초기 단계였고 하드웨어 제약이 컸으며, 대체로 규칙 보강형 패턴 시스템이었으나, 군과 연구실은 이미 표적 지정, 유도, 신호 분류를 위한 학습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후에 이어진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다.

메시지의 정식화 - 1996

인터넷의 폭발적 상업화

웹은 공공적·상업적·범세계적 성격을 띠게 된다. 넷스케이프를 중심으로 브라우저 전쟁이 벌어지고, 아마존과 이베이는 온라인 상거래가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한다. 구글이 설립된다(1996년 스탠퍼드에서 BackRub으로 출발), 윈도우 95의 채택은 소비자용 컴퓨팅의 확산을 가속한다. 1996년은 인터넷이 학술적 성격을 벗고 경제적 영역으로 이행한 시점이다. 1989년에 마련된 인프라가 이제 소비자 규모에 도달한다. 닷컴 시대는 웹사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다—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관한 것이다. 이 시기는 상거래, 광고, 정보 발견, 의사소통 양식을 변화시켰다.

권능을 부여받은 메시지 - 2001년 9월 11일

모바일 + 플랫폼 시대의 개시

미디어의 디지털화 + 초기 클라우드 인프라 + 항시 접속형 광대역. 애플이 아이팟을 출시함(휴대형 디지털 생태계의 개시), 위키피디아가 출범함(집단 지식 플랫폼 모델), 광대역 채택이 급증함, 아마존이 훗날 AWS가 되는 것을 조용히 구축하기 시작함. 9·11 이후 감시 기술이 비약적으로 가속되고, 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급속히 성장함. 여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생태계, 디지털 콘텐츠의 지배, 항시 연결 인프라의 시작이 이루어지며,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위한 토대가 놓인다.

기초가 놓임 - 하박국의 판들 - 2012, 2013

심층 학습의 돌파구

현대 인공지능의 탄생

이것은 신경망이 더 이상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기술로 전환된 결정적 순간—곧 2001년의 '플랫폼/클라우드' 시대와 2023년의 '생성형 AI' 폭발을 정확히 잇는 교량—이다. 2012년 9월: AlexNet(심층 합성곱 신경망)이 ImageNet 대회에서 압도적 격차로 우승—이전의 모든 알고리즘을 제압하였다. 이 단일 사건은 현대 딥러닝이 탄생한 순간으로 AI 연구계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2012년: Geoffrey Hinton의 팀은 GPU에서 학습된 심층 신경망이 계층적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2013년: 구글이 Hinton의 회사(DNNresearch)를 인수하였다. 업계는 갑작스럽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딥러닝에 쏟아붓기 시작하였다. 엔비디아의 GPU 기술(CUDA)은 AI의 표준 하드웨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빅데이터 도구들(2013년에 출시된 Spark 1.0)이 성숙해 가며, 딥러닝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셋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공의 해제 - 2023

생성형 인공지능, 문턱을 넘어서다

AI는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이 되었다. 단지 “더 나은 신경망”만이 아니다. 이는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화이트칼라 업무를 자동화하고, 추론 과업을 확장하며, 그리고 처음으로 AI가 전문화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범용적 인지 도구가 되는 순간이다.

2026 - 특이점?

- 1989년은 끝의 때 자체가 봉인 해제된 때이다(네트워크 연결성이 시작되고, 전 지구적 지식 흐름의 토대가 마련됨; 소련(USSR) 붕괴와 결부되어 재림주의 최후의 은혜의 기간을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 메시지의 정식화로서의 1996년(상업적 웹이 정보경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상거래와 발견을 디지털화한다).
- 메시지의 권능화로서의 2001년(플랫폼, 클라우드, 상시 접속은 집합적이고 모바일한 지식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토대를 놓는다).
- 진정한 지능을 위한 토대의 정초로서의 2012/2013년(딥러닝의 돌파구가 기계 이해를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하게 함).
- 인공 해제의 정점으로서의 2023년(생성형 인공지능이 범용 인지 영역에 진입하여 지식 창출과 추론을 접근 가능하게 하고 파괴적 변화를 야기함)

전개는 정연하다: 각 단계는 선행 단계 위에 누적적으로 구축되며, 이 전개는 연결성 -> 상업화 -> 생태계 -> 지능 -> 인지로 이행한다.

2012~2013년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때 신경망이 계층적·자동적 학습이 가능함이 입증되었고(AlexNet의 ImageNet 대회 우승, 힌턴의 연구 검증, GPU를 통한 스케일링의 가능화), 그로 말미암아 2023년의 생성적 폭발은 필연이 되었다. 2012년의 아키텍처적 전환이 없었다면, 트랜스포머 모델들(2017)과 대규모 스케일링만으로는 ChatGPT 수준의 범용성을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다.